행복을 강요하는 시대…우리는 진정 '행복'한가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해피 크라시

에바 일루즈 외 지음, 이세진 옮김

지난 2006년 개봉한 영화 '행복을 찾아서'는 1980년대 초를 배경으로 한다. 3억 700만 달러를 넘는 수입을 올릴 만큼 박스오피스를 강타했다. 원작의 저자 크리스토퍼 가드너는 부유한 사업가가 된데다, 예약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인기 강연자로 부상했다.

이야기는 이렇다. 전형적인 서민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크리스 가드너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 온갖 시련을 겪지만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다. 어느 날 그는 미국의 유명한 증권사 앞을 지나다 언젠가는 그곳의 주식중개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한다. 집세를 못내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면서도 증권사 입사를 꿈꾼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과 긍정적 마인드 덕분에 그는 인턴 입사 후, 마침내 우수 사원에 뽑혀 정규직이 된다.

영화 '행복을 찾아서'가 인기를 끈 것은 행복 자체에 있지 않았다. 그보다는 행복에 도달한 전형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실존 인물 가드너의 성공은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과연 그럴까? 성공이 선택의 문제로만 국한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이가 있다. 과도한 긍정이 강제하는 행복에는 심각한 한계와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예루살렘 히브리대 사회학과 에바 일루즈 교수와 베를린 막스 플안크 연구소 에드가르 카바나스 박사는 행복을 전파하는 무조건적 행복론자들에게 비판적 거리를 둔다.

두 저자가 펴낸 '해피 크라시'는 행복학과 행복산업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책 제목 '해피 크라시'는 '행복'을 의미하는 '해피'와 '정치체제'를 뜻하는 '크라시'가 결합된 신조어다. 저자들은 "'좋은 삶'을 특정 요소로 환원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긍정심리학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행복학은 근거 없는 전제, 이론상의 부정합성, 미흡하기 짝이 없는 방법론, 입증되지 않은 결과, 자민족 중심주의적이고 기만적인 일반화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

사실 행복산업, 행복학의 공통의 화두는 최고의 선이 바로 행복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행복학이 과학적 타당성이 있는지, 나아가 개념이 객관적인지 반문한다. 한마디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행복을 위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흡사 '열정페이'와 같은 강요된 이데올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다.

또한 저자들은 행복의 관념에 대한 사회적 성찰도 거론한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따지지 않고 개인의 심리적 결함으로만 치부하는 데 대한 의문이다. 공식화된 행복에 대한 강박은 "신자유주의 문화 혁명이 강요하는 가치관의 노예로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음"과 같다는 것이다.

행복학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은 개인의 결함이나 미흡한 상황을 마치 질병 취급하듯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모하는 목표로 제시되는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애쓴다. 자기 개선에 몰입하는 '행복염려증 환자'와 자아에 초점을 맞추는 '행복 연구자'가 등장하게 된 연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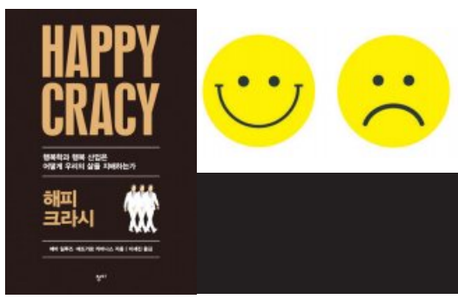
저자들은 "행복은 우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강박을 정상으로 여기게 하려는 시장에서 완벽한 상품이 된다"며 "웰빙 전문가를 자처하는 연구자들과 임상가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치료, 상품, 서비스에 희망을 걸었던 이들은 이 강박에 역습을 당한다"고 설명한다.

오늘날 행복은 수많은 돈이 오가는 상품이 된지 오래다. 시장에서 개인의 발전과 '역량 증진'을 평가하는 기준이자 상품인 것이다. 정서적 상품, 일테면 즐거움과 평온 등을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행복 추구를 라이프스타일이나 존재의 행동과 사고방식으로 정착시킨다.

행복에 대해 기존에 가졌던 선입관을 재검검해야 할 때다. 행복학 헤게모니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저자들은 말한다. "삶을 혁신하는 도덕적 목표로 남아야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정의와 앎"이라고.

〈청미·1만6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행복을 강제하는 오늘의 사회는 역설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HAPPY CRACY

우리가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

김홍 지음

201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김홍 작가는 그동안 장편소설 '스모킹 오레오'를 발표했다. 이번에 펴낸 첫 소설집 '우리가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는 그 주제의식이 스페인 문학의 걸작 '돈키호테'를 닮았다. 한편으로 박민규 소설을 처음 접했을 때와 같은 신선한 저항성을 떠올리게 한다.

김홍 작가의 가장 큰 무기는 이야기 소재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소설에서 구사하는 유머가 A급인지 B급인지 서사의 진행이 '문학적'인지 아닌지 검열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김홍의 문학이 한국문학의 영역을 다시금 확장하고 있다고 본다.

김홍 소설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루저'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이다. 작가가 구사하는 인물들은 실패에 가까운 이들이지만, 스스로 옳다고 믿는 신념을 위해 기꺼이 인생을 던지는 돈키호테와 가깝다. 그렇다고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들은 미약하지 않다.

표제작 '우리가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의 주인공 해수는 아무것도 아닌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인생을 던진다. 고아가 된 해수를 돌봐주는 동네 아저씨 크리스 해밀턴은 생전 트럼펫을 불어본 적 없으면서도 트럼펫 연주자로 기억되고 싶다는 유언을 남긴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한 해수는 오류 생성을 막으려는 '연방 트럼펫 주자 관리 위원회' 압박에 맞서 자발적 디아스포라가 돼 일본으로 떠난다.

작가는 소설 속 인물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과장해 부각시킨다. 다소 허황되고 유치한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이야기는 독자의 마음에 애틋함과 섭섭함, 아련함을 선사한다. 작가 김홍을 일컬어 '웃음 해방꾼'이라고 명명하는 이유다. 〈문학동네·1만3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스님 바랑 속의 동화

정찬주 지음

정찬주 소설가의 법명은 무염(無染)이다. 법정스님이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의미로 그 같은 법명을 지어줬다. 작가는 지난 2002년 화순 계당산 자락에 이불재를 지은 이후 그곳에 머물며 작품 활동에만 매진하고 있다.

이번에 정 작가가 산짐승과 스님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동화책을 출간했다. '스님 바랑 속의 동화'는 현대 불교 역사에서 큰 스님인 성철 스님을 비롯해 법정 스님, 구산 스님의 생명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4분 스님의 지혜와 생명 사랑이 각각의 사연과 함께 담겼다.

저자는 세속에 사는 이들도 집 안팎의 미물이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하물며 스님들의 생명 사랑은 그에 못지않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특히 40대에서 50대에 걸쳐 산중 암자를 순례할 때 보았던 스님들의 생명에 대한 사랑을 짤막한 예화나 에피소드 중심으로 풀어낸다. 성인동화 또는 명상동화로도 확장될 만큼 책은 나이와 세대를 초월해 울림을 준다.

성철스님은 '장미꽃을 보려고 진딧물을 죽이지 마라'는 지론을 견지했다. 어느 날 제자가 분무기로 장미꽃에 약을 뿌리고 있었다. 제자는 성철스님에게 예쁜 꽃을 보여드리고 싶어 약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성철스님은 "이 장미나무를 뽑아 옮기거라. 장미꽃을 보기 위해 진딧물을 죽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한편 삽화는 영국 킹스턴대학교 대학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한 정윤경 작가가 그렸다. '행복한 무소유', '길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등의 삽화를 그린 작가의 작품은 서정적이면서도 정감어린 여운을 준다. 〈다연·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는 강아지입니다

이찬종 지음

우리나라의 애견인구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애견협회에 따르면 국내 애견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애견 수는 약 500만 마리로 추산된다. 이처럼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와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견 교육, 훈련과 관련한 정보도 넘쳐나고 있다. 아울러 유기견과 동물학대 신고도 급증하고 있으며 애견인과 비애견인 사이의 사회적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고 반려견의 문제행동이나 보호자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사회문제로 불거지다 보니, 많은 반려인들이 '내가 정말 반려견을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고 불안해한다.

최근 출간된 '나는 강아지입니다'는 이런 반려인들의 궁금증과 불안함을 해소해주는 책이다. 'TV 동물농장'에 15년 넘게 출연하며 다양한 반려견들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보호자들에게 맞춤형 훈련법과 양육법을 소개해온 이삭애견훈련소 이찬종 소장이 저자로, 그는 20년간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가로 일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았다. 책은 '반려견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개알못이 알아야 할 기초 훈련', '잘못된 습관과 문제행동 교정하기', '반려견의 트라우마 치유하기' 등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됐다.

저자는 '강아지를 사람처럼 아끼면서도 사람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고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양육법'을 제안한다. 아울러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인 '나는 반려견을 왜 키우는가?', '반려견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서울셀렉션·1만65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착색료 ★ 감미료 無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